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2025년 3월 스테이블코인 및 CBDC 보고서
2. 왜 체인링크는 2025년에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인가
3. IMF, 국제 수지 통계에 암호화폐 포함하는 글로벌 기준 개정
4.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한계와 블록체인을 통한 해결책
5. 노스캐롤라이나 법안, 주 연금 시스템에 암호화폐 포함 추진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안전지원본부 신기술안전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2025년 3월 스테이블코인 및 CBDC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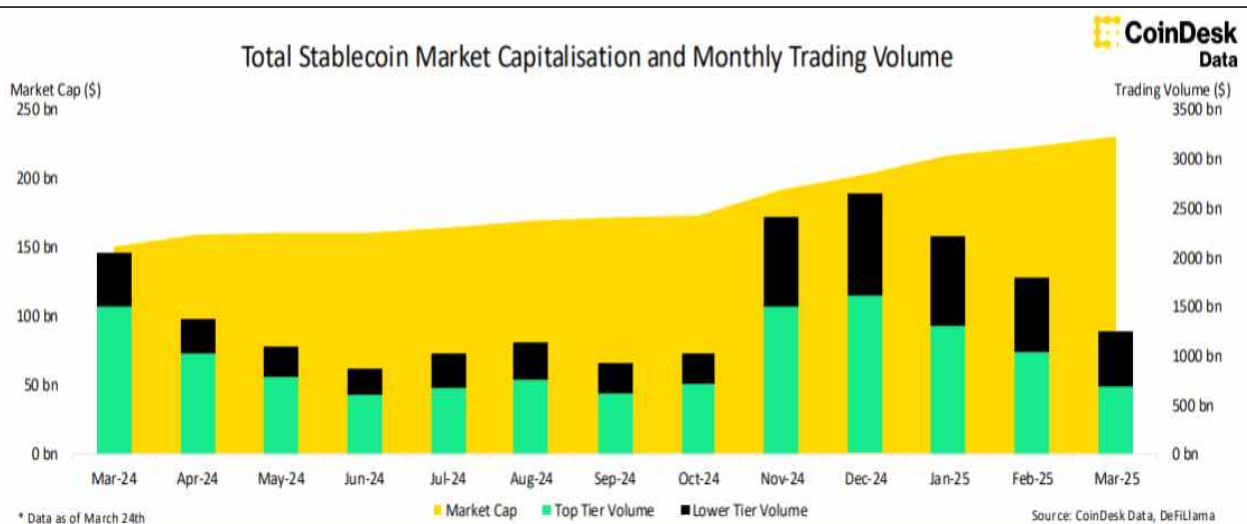
-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불안정 속에서도 시가총액이 지속 증가하며, 신규 합성 스테이블코인이 부상
- 금값 상승에 따라 XAUT-PAXG 등 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 또한 함께 확대

최근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테더 담보 문제 및 테라USD 붕괴로 인해 투자자와 규제 기관의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며,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규모, 거래량 등 주요 분석 자료를 제공해 시장 이해도를 높여 투자자와 규제기관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변화 및 리스크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속적인 거시경제 불안정에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18개월째 증가해 시장 점유율 높아진 최근 시장 현황 분석

- 스테이블코인 총 시가총액은 3.62% 상승해 2,310억 달러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18개월 연속 증가한 기록
- 디지털 자산이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변동성이 큰 가격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영향력은 현재 8.03%로 2월의 7.91%에 비해 0.12% 상승한 비율
-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디지털 자산 시장이 3월에 새로운 저점을 기록한 이후 박스권 거래 양상을 지속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상대적 안정성이 부각된 결과
- 3월 24일 기준 중앙화 거래소에서의 스테이블코인 거래쌍 거래량은 총 1조 2,5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이 3월 초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 여전히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 활동이 전월 대비 둔화된 상황을 나타냄

[총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및 월간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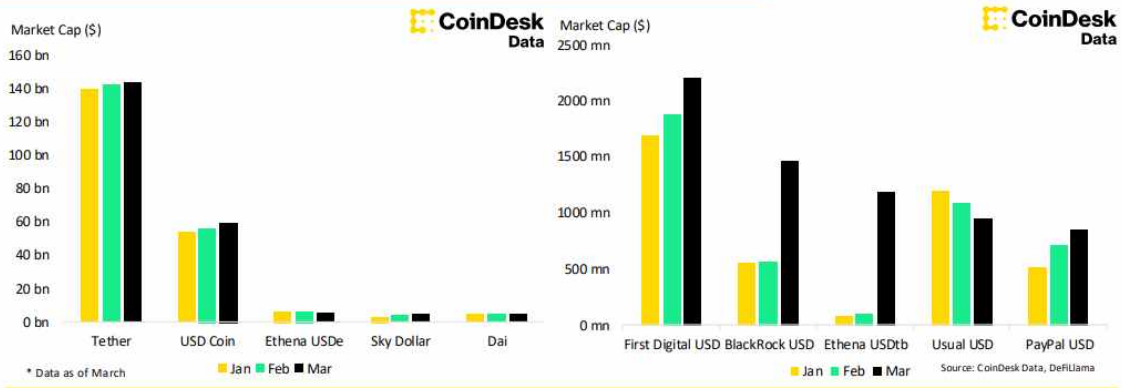
출처 : CCData, 'Stablecoins & CBDCs Report - March 2025', 2025.03.28.

▶ Ethena Labs의 블록체인 발표 효과로 USDtb가 1,219%의 폭발적 시총 증가로 상위 10대 스테이블코인 진입

- 3월 테더(USDT)의 시가총액은 1.19% 증가하며 1,440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나 테더의 시장 점유율은 62.1%로 하락하며, 이는 2023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임
- Ethena Labs의 USDtb와 블랙록의 BUIDL은 상위 10위권 내 스테이블코인 중 가장 높은 시가총액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USDtb는 11.8억 달러, BUIDL은 14.7억 달러의 시총을 기록함

[상위 10개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s Overview: Top 10 Stableco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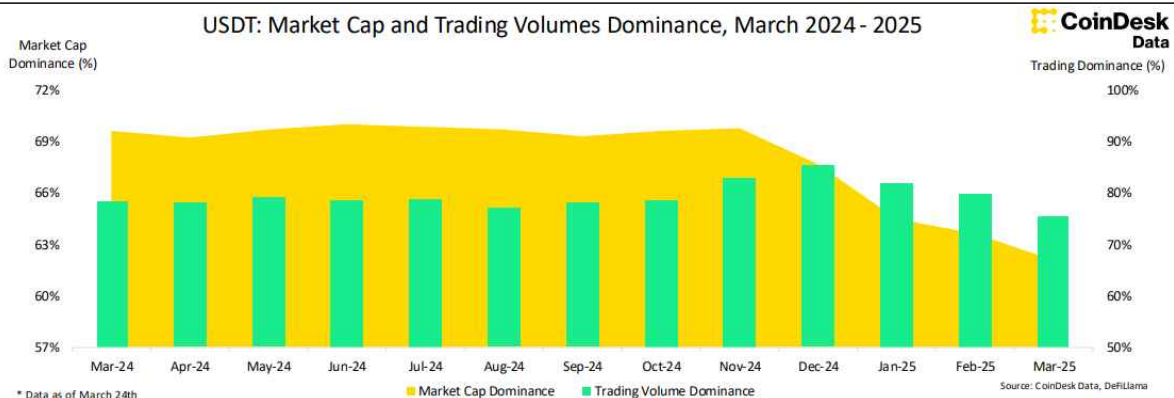


출처: CCData, 'Stablecoins & CBDCs Report - March 2025', 2025.03.28.

▶ 최근 중앙화 거래소에서 USDT 페어 거래량 점유율이 75.5%로 하락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 지배력 약화

- USDT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높은 거래 활동을 유지하며 점유율 75.5%를 차지했으나 이 비중 역시 시장 점유율과 유사한 하락세를 보이며, 3개월 연속 감소해 2023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USDT: 2024년 3월 – 2025년 시가총액 및 거래량 순위]



출처: CCData, 'Stablecoins & CBDCs Report - March 2025', 2025.0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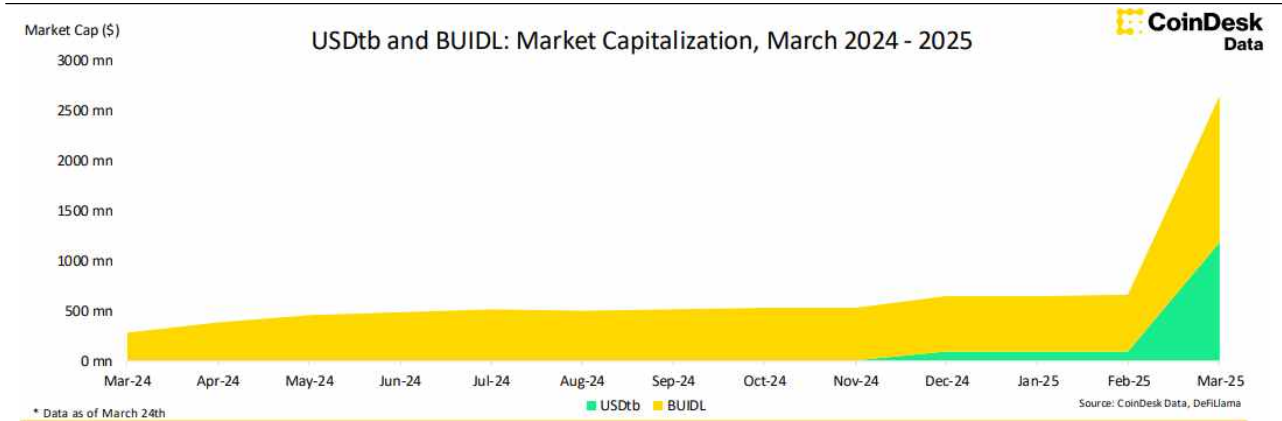
▶ 3월 이더나랩스의 USDtb, 시가총액 1,219% 급증하며 최초로 상위 10대 스테이블코인 진입

- 3월 이더나랩스(Ethena Labs)의 USDtb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1,219% 증가해 11억 8,000만 달러에 도달하였으며, 이러한 급성장으로 USDtb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대 스테이블코인에 진입
- 토큰화 자산을 위한 기관급 EVM 체인인 컨버지(Converge)의 출시와 맞물린 결과,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BUIDL 펀드가 뒷받침하는 합성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이 급증

- USDtb 스테이블코인의 담보자산 중 블랙록의 BUIDL 토큰이 차지하는 비율은 90%이고, 3월 한 달 동안 BUIDL 토큰의 시가총액은 160% 증가한 14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2024년 3월 - 2025년 USDTB 및 BUIDL 시가총액]



출처: CCData, 'Stablecoins & CBDCs Report - March 2025', 2025.03.28.

▶ **금 가격의 급등으로 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가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두 주요 자산의 시장 지배력 강화**

-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3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금과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시가총액 또한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하며 7.53% 증가한 14억 달러에 도달함
- 테더의 XAUT(Tether Gold)와 팍소스의 PAXG(Paxos Gold)가 각각 7억 4,900만 달러와 6억 5,300만 달러의 시가총액으로 금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임
- 금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저장 용도로 주로 활용되지만, 최근 테더골드가 Alloy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DeFi 활용 가능성 모색 중임

▶ **EURC는 시가총액과 거래량 모두 급증하며 유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는 반면, 유럽 규제 강화로 MiCA 비준수 스테이블코인의 상장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 2025년 3월, EURC의 시가총액이 29.5% 증가해 1억 5,700만 달러에 도달하여 역대 최고치의 상승률을 달성하였으며, 유로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전체 시가총액의 45.6%를 차지
- 한편, 유럽 규제 강화로 중앙화 거래소(CEX)들은 MiCA 비준수 스테이블코인을 상장 폐지하고 있으며, Kraken은 주요 스테이블코인 지원을 중단했고, BaFin은 Ethena Labs의 USDe 발행 중단을 요구

- 스테이블코인은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시장 점유율과 시가총액을 꾸준히 확대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
- 금 가격 상승과 블랙록, 이더나랩스 등의 기관 참여가 확대되어 금 기반 및 합성 스테이블코인의 수요와 활용 가능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치 저장을 넘어 기관 중심의 디지털 자산 인프라로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

[출처]

- CCData, 'Stablecoins & CBDCs Report - March 2025', 2025.03.28.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안전지원본부 신기술안전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왜 체인링크는 2025년에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인가

- 체인링크는 실시간 데이터 제공,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등을 통해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의 통합을 실현
- 미국의 규제 완화와 WLF 프로젝트 등 주요 사례는 체인링크가 금융 표준 인프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분산원장 기술 기반 금융 시스템은 중개자를 없애 거래 수수료를 줄이고 은행업에 대한 지리적, 관료적 장벽을 제거하여 글로벌 금융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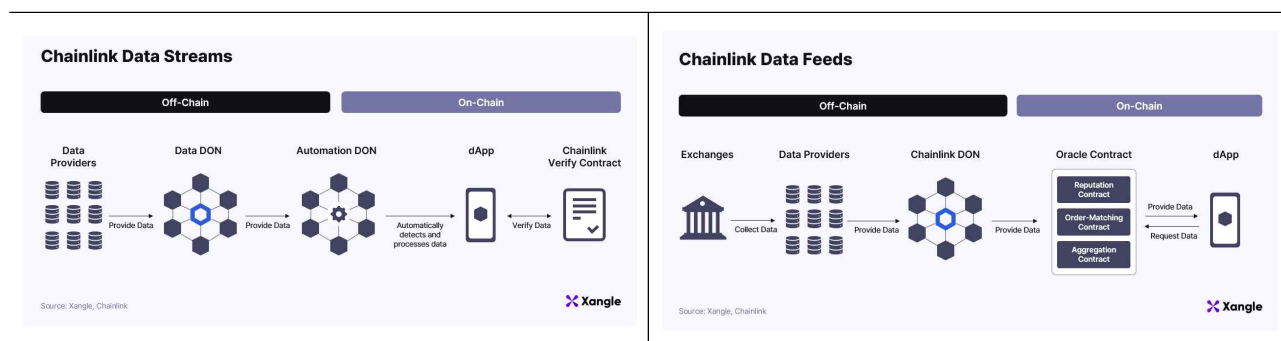
▶ 체인링크는 Web3와 전통 금융을 아우르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다룬 보고서를 통해 기술적 특성과 활용 사례, 금융기관의 채택 이유에 대해 심층 분석

- 체인링크(Chainlink)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며 Web3 생태계뿐 아니라 전통 금융 기관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블록체인 정보 인텔리전스 플랫폼인 Xangle은 체인링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체인링크의 데이터 인프라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의 구체적 특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용 사례, 그리고 전통 금융기관들이 체인링크를 필수적으로 채택하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

* Xangle, 'Why Chainlink Is the One to Watch in 2025', 2025. 03. 20.

▶ 첫째, 체인링크는 탈중앙 오라클 네트워크 기반의 데이터 피드와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 검증된 금융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제공함으로써, 디파이 및 온체인 금융 애플리케이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

[대규모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제안된 SDL 시스템 아키텍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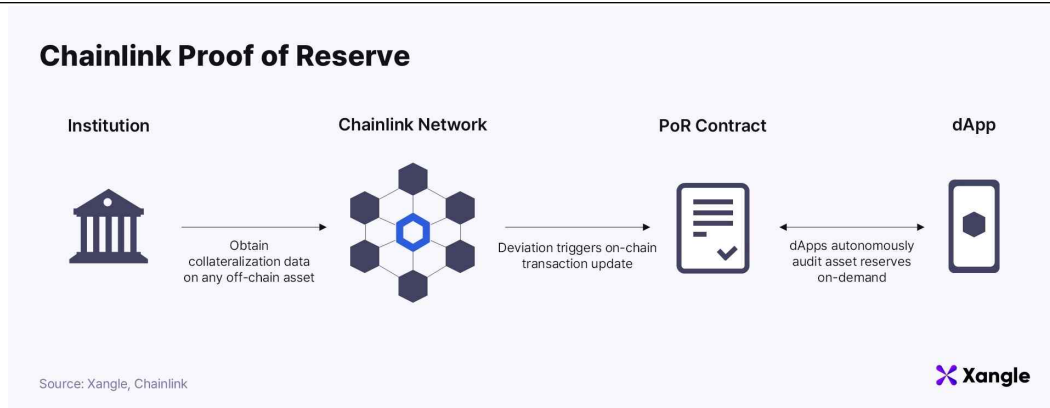


출처: Xangle, 'Why Chainlink Is the One to Watch in 2025', 2025.03.20.

- 체인링크는 데이터 서비스, 특히 데이터 피드(Data Feeds)와 데이터 스트림(Data Streams)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제공
- 데이터 피드는 탈중앙화된 오라클 네트워크(DON)를 통해 다양한 거래소와 금융 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철저히 검증하고, 스마트 계약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블록체인상에 공급
- 특히 데이터 스트림은 밀리초 단위의 지연으로 실시간 시장 데이터를 제공하며, 시장의 유동성과 변동성을 정밀히 반영한 데이터를 통해 디파이 및 온체인 금융 애플리케이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

- ▶ 둘째, 체인링크의 준비금 증명(PoR) 솔루션은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ETF 등 자산의 실시간 담보 상태를 온체인에서 검증함으로써, 사용자 신뢰 회복과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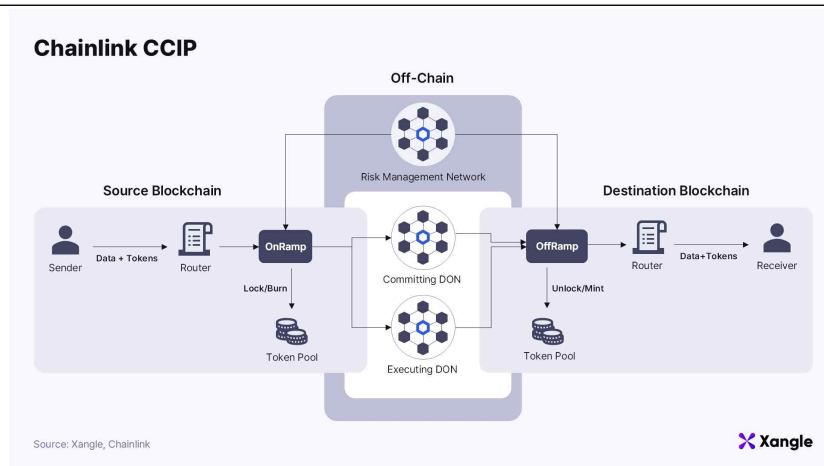
[대규모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제안된 SDL 시스템 아키텍처]



출처: Xangle, 'Why Chainlink Is the One to Watch in 2025', 2025.03.20.

- 체인링크의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PoR)은 투명한 자산 관리와 규제 준수를 가능하게 하며, 비트코인 ETF와 같은 전통 금융상품에도 적용되어 실시간 담보 검증의 표준으로 자리잡음
 - 특히, FTX 붕괴 이후 강화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로 인해, PoR은 블록체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자산의 준비금 상태를 검증함으로써 사용자 신뢰 회복과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
- ▶ 셋째, 체인링크의 CCIP는 블록체인 간의 안전한 자산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SWIFT와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토큰화 자산의 국제 송금을 시연하는 등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

[대규모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제안된 SDL 시스템 아키텍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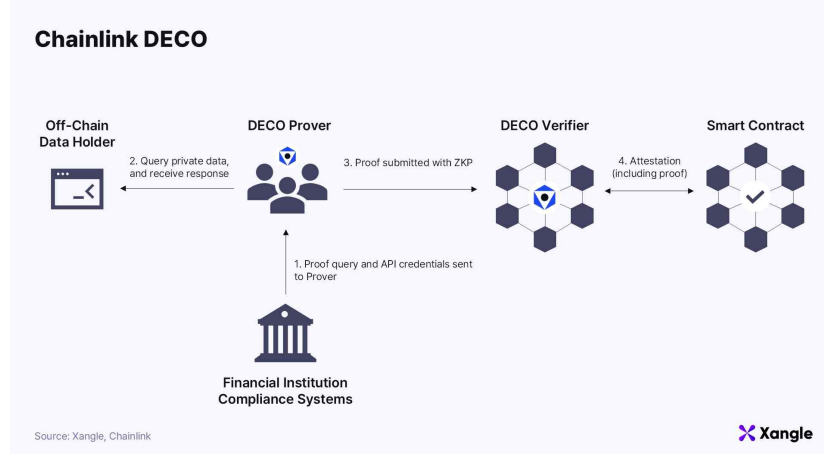
출처: Xangle, 'Why Chainlink Is the One to Watch in 2025', 2025.03.20.

-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 서비스(Cross-Chain Interoperability Protocol, CCIP)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데이터와 자산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며, 금융기관들이 기존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대표적으로 SWIFT가 Citi, BNP Paribas, BNY Mellon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과 함께 CCIP를 통해 토큰화된 자산의 국제 송금을 시연했으며, 이는 블록체인이 전통 금융과 통합되는 혁신적 사례로 평가

▶ 넷째, 체인링크의 프라이버시 오라클 서비스 DECO는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KYC 및 AML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하여 Conbase의 Project Diamond 등에서 그 실효성과 시장 수요를 입증

[대규모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제안된 SDL 시스템 아키텍처]



출처: Xangle, 'Why Chainlink Is the One to Watch in 2025', 2025.03.20.

- 체인링크는 프라이버시 오라클 서비스인 DECO는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금융기관의 KYC 및 AML 같은 엄격한 인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영지식 증명 (Zero-Knowledge Proof, ZKP) 기반으로 작동
- Coinbase의 Project Diamond 사례는 DECO가 실질적인 규제 대응 및 프라이버시 보호 수단으로 동작 가능함을 보여주며 기술의 우수성과 시장 내 필요성을 입증

▶ 결론적으로, 미국의 규제 완화와 WLF 프로젝트와 같은 사례는 체인링크가 전통 금융과 DeFi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성장과 혁신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최근 미국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더불어 트럼프 가문이 주도하는 World Liberty Financial(WLF) 프로젝트가 체인링크의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전통 금융과 DeFi를 성공적으로 연결
- 이는 체인링크가 향후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체인링크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체인링크는 데이터 신뢰성, 상호운용성, 개인정보 보호, 자동화 등 블록체인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며 Web3와 전통 금융을 연결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함
- 규제 완화와 전통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맞물리며, 체인링크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 표준 인프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음

[출처]

- Xangle, 'Why Chainlink Is the One to Watch in 2025', 2025.03.20.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안전지원본부 신기술안전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IMF, 국제 수지 통계에 암호화폐 포함하는 글로벌 기준 개정

- IMF는 비트코인은 비생산 비금융 자산, 이더리움·솔라나는 지분형 자산으로 분류하여 국제수지 항목을 세분화
- 스테이킹 보상, 채굴·검증 활동 등 암호자산 관련 수익과 활동을 기존 회계체계에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 제시

IMF는 글로벌 통계 기준에 디지털 자산의 실질적 경제 영향을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의 경제적 특성과 복잡한 활용 사례를 반영하여 국제수지 기준을 전면 개정

▶ IMF(국제통화기금), 디지털 자산의 증가하는 영향력을 반영하여 국제수지 기준을 전면 개정

- IMF가 디지털 자산의 경제적 영향력을 반영하여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기준을 전면 개정
- 이번 매뉴얼은 국가들이 거시경제 통계를 작성하는 데 있어 개념적 전환을 제시하며, 디지털 자산과 관련 서비스의 경제적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 3월 20일 발표한 제7차 국제수지 편람(BPM7)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비생산 비금융 자산(non-produced nonfinancial assets)'으로 분류하며 특정 토큰은 주식과 유사하게 취급하도록 정의
- IMF의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은 대체 가능성(fungible/non-fungible) 및 부채 존재 여부에 따라 분류되며, 부채가 없는 비트코인은 자본 자산으로 분류되어 국제수지 상 자본 계정(capital account)에 '비생산 비금융 자산'으로 별도 기록됨
- 이더리움(Ethereum, ETH), 솔라나(Solana, SOL)와 같이 프로토콜 또는 플랫폼 기반의 토큰은 소유자가 해외 거주자일 경우, 금융 계정에서 지분성(equity-like) 자산으로 기록됨
- 예를 들어, 영국 투자자가 미국에서 발행된 솔라나 토큰을 보유할 경우, 기존의 해외주식 투자처럼 '지분형 암호화 자산(equity crypto assets)'으로 분류
- 또한, 스테이킹 및 수익 발생형 암호화폐 활동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스테이킹 보상 역시 주식 배당금과 유사하게 간주될 수 있으며, 보유 목적 및 규모에 따라 경상수지의 소득 항목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밝힘
- 그 외에도, 암호화폐 보상 활동을 주식의 배당금과 같이 계정 소득에 기록하도록 권고하며, 암호화폐의 거래 검증 관련 거래는 서비스 생산 활동으로 간주되어 컴퓨터 서비스의 수출입 항목에 포함된다고 설명

- BPM7 국제수지 편람은 전 세계 160개국 이상이 참여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글로벌 표준으로,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나 IMF의 이번 개정은 디지털 자산의 거시경제적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형식으로 표준화한 첫 사례로 자리잡음
- 이는 향후 수년 동안 국제수지 통계 작성의 공식 지침 역할을 함으로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 서비스의 경제적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기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출처]

- CryptoSlate, 'IMF updates global standards to include crypto in balance of payments', 2025.03.21.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안전지원본부 신기술안전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한계와 블록체인을 통한 해결책

- 블록체인 기반 PayFi 등은 중개 비용과 수수료를 줄이고, 실시간 결제와 금융 접근성을 동시에 강화
- 블록체인은 규제 미비, 기술적 취약성, 제도권과의 연계 문제 등은 실질적 확산을 위한 걸림돌로 지적됨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분산원장 기술 기반 금융 시스템은 중개자를 없애 거래 수수료를 줄이고 은행업에 대한 지리적, 관료적 장벽을 제거하여 글로벌 금융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 전통 금융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PayFi 등은 중개 비용을 줄이고 실시간 결제와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며, 금융 소외 해소와 비용 절감에 기여

- 전통 금융 시스템은 ▲중개 기관으로 인한 높은 거래 비용 ▲송금 수수료 부담 ▲느린 결제 속도 ▲지속적인 금융 사기로 인한 범죄 피해 ▲사이버 범죄 ▲중앙집중형 시스템으로 인한 부정부패 ▲금융 소외 계층 증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의 한계 존재
- 블록체인 기반 PayFi와 같은 결제 인프라는 중개자를 배제하여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기존 은행 송금보다 비용이 적게 들며, 레이어2 솔루션과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를 제공해 개인과 기업의 비용 절감 및 금융 접근성을 개선
- 블록체인은 거래를 수초에서 수분 내에 처리하여 실시간 결제를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지리적 및 관료적 장벽을 허물고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서비스 확대가 가능

▶ 블록체인은 보안성과 사기 방지에 강점을 지니지만, 규제 불확실성과 스마트 계약의 취약성, 기존 금융과의 통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

- 블록체인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로 거래를 변조 불가능하게 하고 중앙집중화된 은행과 달리 분산된 노드들에 거래 기록이 저장되어 해킹에 매우 강력한 내성을 가지며,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자동화된 거래 처리 역시 금융 사기 위험을 현저히 낮춤
- 그러나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며, 스마트 계약의 보안 취약성 또한 관리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음
-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은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탈중앙화와 투명성 중심의 문화적 전환 역시 전통 금융 기관에게는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어 향후의 귀추가 주목됨

- 분산원장 기반의 금융 시스템은 중개자 제거, 비용 절감, 실시간 결제 등을 통해 기존 금융의 한계를 보완하며, 글로벌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음.
- 다만, 규제 불확실성, 스마트 계약의 보안 취약성, 전통 시스템과의 통합 난제는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기술 개선이 요구되는 주요 과제로 남아 있음.

[출처]

- Forbes, 'Drawbacks Of Traditional Financial Systems And How Blockchain Tech Can Help', 2025.03.28.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안전지원본부 신기술안전단 블록체인정책팀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법안, 주 연금 시스템에 암호화폐 포함 추진

-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퇴직연금의 최대 5%를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현대화 법안'을 발의
- 주 상원은 공공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비트코인 예비 및 투자법안'을 별도로 발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퇴직연금과 공공자금의 일부를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이를 감독할 독립 투자기관과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섬

▶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퇴직연금의 최대 5%를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이를 감독할 독립 투자기관을 신설하는 '투자 현대화 법안'을 발의**

-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퇴직연금 기금의 최대 5%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
- 이 법안은 '노스캐롤라이나 투자청(North Carolina Investment Authority)'을 신설하도록 규정하여 퇴직연금 기금의 투자를 감독할 독립적인 투자기관을 마련
- 3월 24일, 하원 의원인 브랜든 존스(Brenden Jones)이 발의한 '투자 현대화 법안(House Bill 506)'은 주 재무부 산하에 독립 투자청을 설립하여 디지털 자산의 투자 적합성을 판단하게 하도록 함
- 해당 법안들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NFT 등 경제적 권리를 부여하는 모든 전자적 형태의 자산으로 정의하나, 투자 가능한 디지털 자산의 시장가치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법안은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를 강제하지 않으며, 투자청이 각 디지털 자산의 리스크와 보상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은 공공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전문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를 관리하는 내용의 '비트코인 예비 및 투자법안(Senate Bill 327)'을 발의**

- 3월 18일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에서는 비트코인 예비 및 투자법안(Senate Bill 327)이 별도로 발의됨
- 이 법안은 주 재무부가 최대 10%의 공공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 위기 시에만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 비트코인의 3분의 2를 매각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설정함
- 비트코인 예비 기금 법안은 이 기금을 관리 감독할 비트코인 경제 자문위원회(Bitcoin Economic Advisory Board) 설립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기금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함

-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가 퇴직연금의 최대 5%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 별도의 법안을 통해 최대 10%의 공공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예비 기금도 마련하며, 경제 위기 시의 제한 운용을 규정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차원 비트코인 기금 구축 명령 등, 미국 전역에서 공적 자금의 디지털 자산 투자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출처]

- Cointelegraph, 'North Carolina bills would add crypto to state's retirement system', 2025.03.26.